

청년층(20~29세) 고용보조지표 추이와 특징

이 기 씬*

I. 머리말

최근 발표된 2019년 5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20대 청년층 실업률은 10.1%이다. 이에 더해 실업자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4.4%에 달한다. 이는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과 공식실업률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수치로, 청년층 노동시장 내에 실업자뿐만 아니라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가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층 실업문제에 대한 논의와 대책의 마련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경제 내에 미처 활용되고 있지 않은 노동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고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20대 청년층에 한정하여 고용보조지표를 산식에 따라 산출해 본다. 또한 실업자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까지 모두 포괄하는 고용보조지표3을 중심으로 하여 각 개별 항목의 규모와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20대 청년층 노동시장의 현황과 그 특성을 파악해 봄으로써 현재 청년층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ppeum@kl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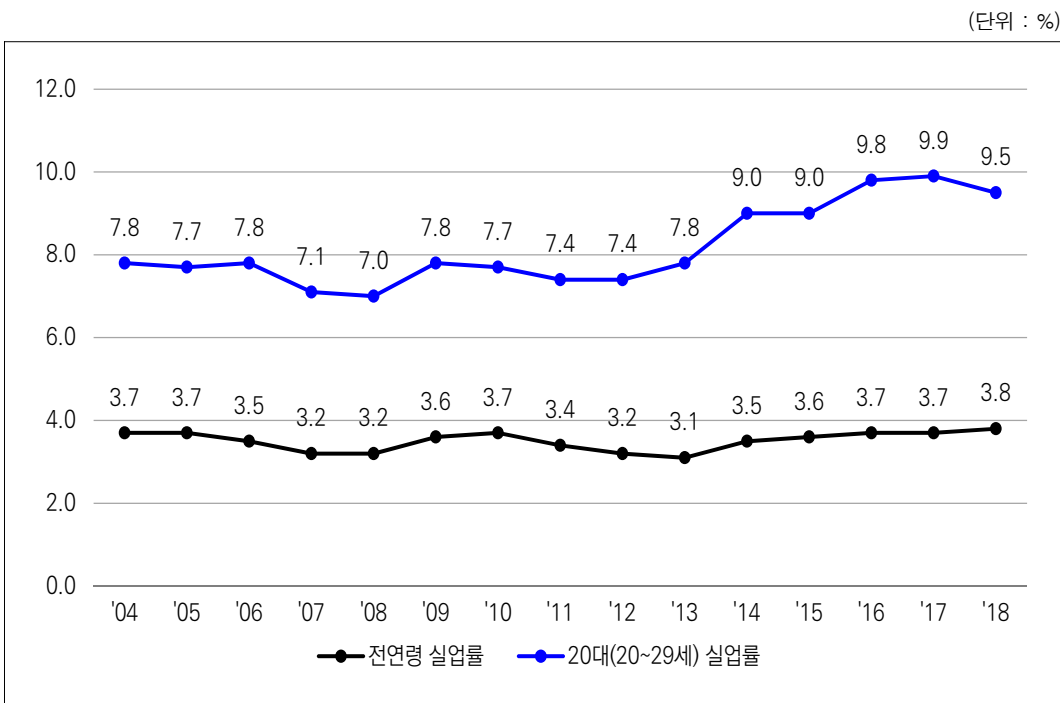
II. 청년층 고용보조지표의 추이와 특징

1. 고용보조지표

우리나라 20대 청년층 실업률은 2000년대 들어 대체로 7%대를 기록해 왔으나 2013년 이후로는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2014년 9.0%(전년대비 1.2%p 상승)로 올라선 후 9%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시기 실업률의 증가에는 공무원 시험준비생들이 시험에 응시하면서 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된 것 등과 함께 취업성공패키지 확대와 같은 정부 정책의 효과도 일부 존재한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경우 미취업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로 상담, 취업역량·직업심리검사,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수립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알선까지 이루어지므로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무르던 청년층 미취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진입

[그림 1] 청년층(20~29세) 실업률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하게 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공식실업률은 노동시장 내에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노동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지만, 실제로 느끼는 실업률과의 격차로 인해 노동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실업자의 판단 기준이 ‘지난 1주간 일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고,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는 자’로 한정된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는 여전히 활용가능하나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력으로서, 실업자 외에도 일하기를 희망하여 고용시장에 진입가능한 자가 있다. 이에 통계청에서는 이들에 대한 현황을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에서 고려하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은 실업자뿐만 아니라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괄한다. 여기서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란 취업자 중에 단시간 근로자(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이 가능한 자이며, ‘잠재경제활동인구’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현실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잠재적으로 취업이나 구직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이 ‘잠재경제활동인구’에는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가 포함된다. 고용보조지표에 포함된 ‘시

〈표 1〉 고용보조지표의 산출방식

	산출방식	구성지표의 정의
실업률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실업자: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 ¹⁾
고용보조지표 1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지난주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이 가능한 자 ²⁾
고용보조지표 2	(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	잠재경제활동인구: 잠재취업가능자(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 ³⁾)와 잠재구직자(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의 합
고용보조지표 3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	확장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와 잠재경제활동인구 합

주 : 1) 취업가능성 판단: 구직활동을 했던 직장(일) 등을 포함한 모든 직장(일)에서 어떤 일이 주어졌다면, 지난주에 개인적인 제약요건(직장(일)을 시작하는데 제약요건이 되는 경우로 일시적 병(사고), 심신장애, 가사·가족일, 육아, 학교재학, 입시학원 통학 및 진학준비, 연로, 다니던 직장(일)의 정리 등)을 감안하여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를 판단.

2) 추가취업가능성 판단: 추가취업을 원하는 일이 주어졌다면, 지난주에 개인적인 제약요건을 감안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

3) 취업가능성 판단: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지난주에 개인적인 제약요건을 감안하여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

4) 고용보조지표는 2015년부터 발표됨.

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나 '잠재경제활동인구'는 모두 취업을 희망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취업상태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또는 취업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개별적 특성도 지니고 있다.¹⁾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20대 청년층 고용보조지표를 산출해 보았다. 2019년 5월 기준 20대 청년층 실업자는 420천 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106천 명,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는 각각 15천 명, 632천 명이다. 실업자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가 포함된 고용보조지표 1은 12.7%, 비경제활동인구 내에 존재하는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가 포함된 고용보조지표 2는 22.2%, 이를 모두 포함하는 고용보조지표 3은 24.4%로 나타났다.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 1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지만 고용보조지표 2와 고

〈표 2〉 청년층(20~29세) 고용보조지표 추이

(단위 : %, 천 명)

	2015	2016	2017	2018	2017			2018			2019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실업률	9.0	9.8	9.9	9.5	11.3	11.3	9.5	11.6	10.7	10.6	10.9	11.7	10.1
고용보조지표 1 (배율 ¹⁾)	10.5 (1.16)	11.5 (1.17)	11.7 (1.18)	11.4 (1.20)	13.0 (1.15)	13.1 (1.16)	11.4 (1.20)	13.3 (1.14)	12.3 (1.15)	12.4 (1.17)	13.4 (1.24)	14.0 (1.20)	12.7 (1.25)
고용보조지표 2 (배율)	20.5 (2.27)	20.5 (2.09)	21.2 (2.14)	21.1 (2.23)	22.4 (1.99)	22.1 (1.95)	21.3 (2.25)	22.5 (1.93)	21.9 (2.04)	21.6 (2.04)	23.0 (2.12)	23.3 (1.99)	22.2 (2.20)
고용보조지표 3 (배율)	21.8 (2.41)	22.0 (2.24)	22.7 (2.29)	22.8 (2.41)	23.9 (2.12)	23.7 (2.10)	22.9 (2.42)	23.9 (2.06)	23.3 (2.17)	23.2 (2.19)	25.2 (2.32)	25.3 (2.17)	24.4 (2.42)
남성	23.5	23.8	25.1	24.4	26.1	26.1	25.3	25.8	25.2	24.7	27.4	27.2	25.9
여성	20.2	20.1	20.4	21.3	21.9	21.4	20.6	22.1	21.4	21.8	23.1	23.4	22.9
20~24세	25.7	24.8	25.2	26.6	28.1	27.9	27.1	27.8	26.1	27.0	31.2	30.7	29.9
25~29세	19.2	20.1	21.1	20.6	21.3	21.0	20.2	21.7	21.7	21.0	21.8	22.2	21.3
재학생 ²⁾	28.3	28.6	28.5	25.4	31.3	30.1	28.4	26.4	27.1	26.4	27.1	27.3	26.8
고졸 이하 ²⁾	20.4	19.6	19.7	22.2	18.4	19.6	20.6	22.7	21.7	22.6	25.0	24.1	23.9
전문대졸 ²⁾	17.2	15.7	19.1	18.9	20.6	20.4	19.6	18.9	19.1	18.8	20.5	21.7	21.2
대졸 이상 ²⁾	22.4	24.2	24.4	24.5	26.2	25.5	24.2	26.7	25.4	25.2	27.4	27.5	25.9

주 : 1) 실업률 대비 고용보조지표 비율.

2) 재학생은 고등학교 재학 또는 휴학,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석사, 박사)은 재학, 휴학, 수료를 포함.

고졸 이하는 무학, 초등학교(중퇴, 졸업), 중학교(중퇴, 졸업), 고등학교(중퇴, 졸업), 대학교(4년제, 2,3년제) 중퇴를 포함, 대졸 이상은 대졸, 대학원(석사) 중퇴, 대학원(박사) 중퇴, 대학원(석사) 졸업, 대학원(박사) 졸업을 포함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1) 통계청(2014. 11) 「보도참고자료」.

용보조지표 3과는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데²⁾, 이는 그만큼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잠재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고용보조지표가 발표된 이후로 청년층 남성 고용보조지표 3은 여성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5월 현재 청년층 남성의 고용보조지표 3은 25.9%, 여성은 22.9%).

청년 연령층을 5세 단위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20~24세 연령층의 고용보조지표가 25~29세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이 관찰된다. 25~29세 고용보조지표 3은 대체로 18~22%대의 범위내(실업률에 대한 배율은 1.79~2.76배)에서 움직이고, 20대 초반 연령층에 비해 변동폭이 적다. 반면, 20~24세 고용보조지표 3은 2017년 2월과 3월에 28%대(실업률에 대한 배율은 1.99~2.23배)를 기록하였다가 점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추세적으로 상승하여 2019년 3월에는 31.2%까지 상승(실업률에 대한 배율은 2.34배)하였고 다시 소폭 하락한 모습(5월 현재 29.9%, 실업률에 대한 배율은 2.53배)이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2019년 5월 재학생 고용보조지표 3이 26.8%로 가장 높고, 대졸 이상 학력소지자의 고용보조지표 3도 25.9%로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비교적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고용보조지표 3은 21.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 고용보조지표를 구성하는 항목별 특징

이제는 고용보조지표를 구성하는 항목들을 통해 청년층 고용상황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3>에 청년층 고용보조지표 구성항목의 규모와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청년층 실업자 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모습으로 5월에는 전년동월대비 20천 명 감소한 420천 명을 기록하였다. 한편 청년층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2018년 6월 이후로 전년동월에 비해 증가하는 모습이고, 잠재경제활동인구도 2018년 8월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잠재경제활동인구의 증가세는 잠재구직자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잠재구직자가 실업자보다 더 큰 규모인 영향으로 고용보조지표 3의 분자에 해당하는 ‘실업자+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잠재경제활동인구’는 최근 11개월 동안 전년동월대비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청년층 실업자는 2019년 5월 현재 420천 명(20대 생산가능인구 중 6.53%)으로 이 중 남성이 220천 명(3.42%), 여성이 200천 명(3.11%)이다. 또한 20대 초반(169천 명, 20대 생산가능인구 중 2.63%)보다 20대 후반(251천 명, 3.90%) 실업자 규모가 더 크다. 구직기간별로 나누어 청년층 실업자의 실업상태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보면, 구직기간이 1년 미

2)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 1의 격차는 1~2%p 수준으로 실업률과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으나 그 격차가 점점 벌어져 2019년 5월 실업률과 2.6%p까지 차이가 확대된다.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 2의 격차는 약 9~13%p,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 3의 격차는 약 11~15%p 수준이다.

〈표 3〉 청년층(20~29세) 고용보조지표 구성항목 추이

(단위 : %, %p, 천 명)

	2015	2016	2017	2018	2017			2018			2019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고용보조지표 3 (증감)	21.8 -	22.0 (0.2)	22.7 (0.7)	22.8 (0.1)	23.9 (0.0)	23.7 (1.0)	22.9 (0.9)	23.9 (0.0)	23.3 (-0.4)	23.2 (0.3)	25.2 (1.3)	25.3 (2.0)	24.4 (1.2)
실업자(A)+시간관련(B)+잠재경향 (C+D) (증감)	994 -	1,012 (18)	1,055 (43)	1,069 (14)	1,115 (13)	1,111 (60)	1,086 (58)	1,123 (8)	1,090 (-21)	1,098 (12)	1,211 (87)	1,214 (124)	1,173 (75)
실업자(A) (증감)	360 -	399 (39)	402 (3)	387 (-16)	459 (-12)	465 (20)	391 (-6)	479 (20)	439 (-26)	440 (50)	450 (-29)	486 (47)	420 (-20)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B) (증감)	58 -	67 (9)	72 (4)	78 (7)	71 (11)	77 (11)	77 (9)	68 (-3)	66 (-10)	75 (-2)	106 (39)	98 (31)	106 (31)
잠재취업가능자(C) (증감)	9 -	12 (2)	16 (5)	11 (-5)	18 (9)	17 (3)	17 (7)	13 (-6)	11 (-5)	10 (-7)	10 (-3)	12 (0)	15 (5)
잠재구직자(D) (증감)	567 -	534 (-33)	565 (31)	593 (28)	567 (5)	553 (27)	602 (49)	565 (-3)	574 (21)	573 (-29)	645 (80)	619 (45)	632 (59)
확장경향 (증감)	4,555 -	4,608 (53)	4,644 (36)	4,690 (46)	4,658 (46)	4,688 (69)	4,737 (61)	4,700 (42)	4,685 (-3)	4,725 (-12)	4,800 (101)	4,799 (114)	4,803 (78)

주 : 1) 증감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4〉 청년층(20~29세) 실업자

(단위 : %, 천 명)

	2015	2016	2017	2018	2017			2018			2019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20~29세 (비중 ¹⁾)	360 (5.8)	399 (6.3)	402 (6.3)	387 (6.1)	459 (7.2)	465 (7.3)	391 (6.1)	479 (7.5)	439 (6.9)	440 (6.9)	450 (7.0)	486 (7.6)	420 (6.5)
남성	205	216	228	206	252	265	226	253	235	235	252	265	220
여성	155	183	174	181	207	200	165	226	204	205	198	222	200
20~24세	165	170	163	155	195	199	175	202	161	164	194	204	169
25~29세	195	229	240	232	264	266	216	277	278	276	256	282	251
구직기간 1년 미만	359	395	398	381	455	461	383	467	427	433	449	485	419
3개월 미만	213	218	216	199	315	224	176	312	266	198	297	334	223
3~6개월 미만	112	126	130	129	106	203	172	108	116	195	91	105	154
6~12개월 미만	35	52	52	53	34	35	36	47	44	39	61	47	42
구직기간 1년 이상	1	4	5	6	5	4	7	12	13	8	1	1	1

주 : 1) 20~29세 생산가능인구 중 실업자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5〉 청년층(20~29세)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단위 : 천 명, %)

	2015	2016	2017	2018	2017			2018			2019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취업경험 있음	298	326	324	323	348	360	318	377	342	364	364	382	353
1년 이내 ¹⁾	183	198	204	208	216	228	204	225	214	219	262	262	243
(비중 ²⁾)	(51.0)	(49.6)	(50.7)	(53.7)	(47.0)	(49.0)	(52.1)	(46.9)	(48.8)	(49.7)	(58.3)	(53.8)	(57.7)
1년 이상	114	128	120	116	132	132	114	152	127	145	102	121	111
(비중 ²⁾)	(31.7)	(32.0)	(29.9)	(29.9)	(28.7)	(28.4)	(29.2)	(31.8)	(29.0)	(33.0)	(22.6)	(24.8)	(26.3)

주 : 1) 전직기간 1년 이내임.

2) 20~29세 실업자 중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만인 실업자 중에서도 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실업자(2019년 5월 현재 223천 명)가 가장 많고, 3) 사실상 장기실업상태라 할 수 있는 6개월 이상 실업자는 43천 명, 1년 이상 실업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훨씬 작다(1천 명, 20대 실업자 대비 0.24%).

장기실업자가 적은 이유가 만약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이행했기 때문이라면 사실상 미취업상태는 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20대 청년 실업자의 구직기간이 짧다는 것이 실직상태에서 벗어나 취업으로 가는 기간이 짧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현재 실업자이면서 취업한 경험이 1년 이전에 있었던 자’의 규모를 측정해 보면, 2019년 5월 현재 111천 명으로 20대 실업자 중 26.3%를 차지한다. 특히 20대 실업자 중 이직기간이 1년 이상인 고학력 실업자(55천 명) 비중은 13.0%로 가장 크다(전문대졸 5.7%, 고졸 이하 5.0%, 재학생 2.7%).

다음 고용보조지표 3 구성항목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이다. 최근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취업상태이긴 하지만 36시간 미만 근로하는 현재의 고용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 취업을 원하는 자들이다. 20대 취업자 수에서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5월 2.85%(106천 명)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57천 명(20대 취업자 중 1.52%), 여성은 50천 명(1.33%)으로 모두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2019년 5월 대졸 이상이 28천 명(0.74%), 전문대졸이 20천 명(0.54%), 고졸 이하 38천 명(1.01%), 재학생 21천 명(0.55%)으로 나타났다.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위주로 집중되어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는 ‘현재 일자리가 아닌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3) 2018년 기준 전연령 실업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3.11개월이고, 20대 청년층 실업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3.22개월이다. 20대 실업자의 학력별 평균 구직기간은 대졸 이상(3.61개월) > 전문대졸(3.12개월) > 고졸 이하(3.08개월)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청년층(20~29세)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¹⁾

(단위 : %, 천 명)

	2015	2016	2017	2018	2017			2018			2019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20~29세	58	67	72	78	71	77	77	68	66	75	106	98	106
(비중 ²⁾)	(1.61)	(1.84)	(1.95)	(2.12)	(1.96)	(2.09)	(2.07)	(1.86)	(1.81)	(2.03)	(2.87)	(2.65)	(2.85)
남성	21	27	25	30	29	24	26	22	25	27	52	46	57
여성	37	40	47	48	42	53	51	45	41	48	54	52	50
재학생 ³⁾	13	17	14	14	15	16	14	10	10	11	24	19	21
고졸 이하 ³⁾	13	16	16	24	16	14	20	22	23	24	28	25	38
전문대졸 ³⁾	10	11	16	16	18	19	16	16	12	15	24	22	20
대졸 이상 ³⁾	22	24	26	25	22	27	27	20	22	25	30	31	28

주 : 1)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에는 실제 취업시간이 0시간인 일시휴직자가 포함됨.

2) 20~29세 취업자 수 대비 비중임.

3) 재학생은 고등학교 재학 또는 휴학,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석사, 박사)은 재학, 휴학, 수료를 포함.

고졸 이하는 무학, 초등학교(중퇴, 졸업), 중학교(중퇴, 졸업), 고등학교(중퇴, 졸업), 대학교(4년제, 2.3년제) 중퇴를 포함, 대졸 이상은 대졸, 대학원(석사) 중퇴, 대학원(박사) 중퇴, 대학원(석사) 졸업, 대학원(박사) 졸업을 포함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다른 일(직장)로의 전직을 희망하는'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의 비중이 높고, 교육서비스업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의 비중이 높다.

이제 청년층 고용보조지표 3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잠재경제활동인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019년 5월 청년층 잠재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지만) 일자리가 주어졌을 경우 취업할 수 없었던 자인 잠재취업가능자(15천 명)보다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자리가 있는 경우 취업의사와 가능성이 있는 잠재구직자(632천 명)의 규모가 훨씬 크다. 20대 잠재구직자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2015년 24.9%→2018년 25.7%)하여 2019년 5월 현재 27.7%를 차지한다. 20대 초반 연령대(292천 명)에서는 여성 잠재구직자 비중(20대 초반 잠재구직자 중 58.7%)이 크고 20대 후반 연령대(339천 명)에서는 남성 잠재구직자 비중(20대 후반 잠재구직자 중 63.4%)이 크다. 청년층의 경우 학력에 따라 잠재구직자 규모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20대 잠재구직자를 학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졸 이상 고학력 잠재구직자의 규모가 가장 크다는 특징이 발견된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 잠재구직자는 2015→2018년에 191천 명(33.8%)→235천 명(39.6%)까지 증가하였고, 2019년 5월 234천 명으로 20대 전체 잠재구직자 중 37.1%를 차지한다.⁴⁾ 성별로 나누어 보면, 2019년 5월 남성이 109천 명, 여성은 126천 명으로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래

4) 20대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구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 2018년에 56.2% → 68.4%로 높아지고 2019년 5월 66.8% 수준이다.

〈표 7〉 청년층(20~29세) 잠재경제활동인구

(단위 : %, 천 명)

	2015	2016	2017	2018	2017			2018			2019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잠재취업가능자	9	12	16	11	18	17	17	13	11	10	10	12	15
20~24세	4	6	8	6	8	10	4	6	4	5	7	6	5
25~29세	5	6	8	6	10	7	13	6	8	5	3	6	10
잠재구직자	567	534	565	593	567	553	602	565	574	573	645	619	632
(비중 ¹⁾)	(24.9)	(23.9)	(24.6)	(25.7)	(25.0)	(24.8)	(26.9)	(25.1)	(25.1)	(25.6)	(28.2)	(27.3)	(27.7)
20~24세	277	247	248	257	273	265	288	239	250	261	291	281	292
(남성)	(116)	(113)	(113)	(107)	(120)	(118)	(130)	(108)	(112)	(115)	(123)	(115)	(121)
(여성)	(162)	(134)	(135)	(151)	(154)	(146)	(158)	(131)	(139)	(146)	(167)	(166)	(172)
25~29세	289	288	317	336	294	288	314	326	323	312	354	338	339
(남성)	(180)	(180)	(204)	(211)	(186)	(187)	(203)	(211)	(200)	(190)	(227)	(220)	(215)
(여성)	(109)	(108)	(114)	(124)	(108)	(101)	(112)	(115)	(123)	(122)	(127)	(118)	(124)
재학생 ²⁾	152	134	129	115	124	120	134	98	114	106	114	111	112
고졸 이하 ²⁾	124	116	126	141	113	124	130	130	130	142	156	150	154
전문대졸 ²⁾	100	81	94	102	102	97	107	99	103	107	110	122	132
대졸 이상 ²⁾	191	203	216	235	229	212	231	238	227	218	264	236	234

주 : 1) 20~29세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구직자 비중임.

2) 재학생은 고등학교 재학 또는 휴학,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석사, 박사)은 재학, 휴학, 수료를 포함.

고졸 이하는 무학, 초등학교(중퇴, 졸업), 중학교(중퇴, 졸업), 고등학교(중퇴, 졸업), 대학교(4년제, 2.3년제) 중퇴를 포함, 대졸 이상은 대졸, 대학원(석사) 중퇴, 대학원(박사) 중퇴, 대학원(석사) 졸업, 대학원(박사) 졸업을 포함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대체로 여성 고학력 잠재구직자의 규모가 남성보다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30천 명대 정도 컸다. 연령별로는 20대 초반(61천 명)보다 20대 후반(174천 명)에서 고학력 잠재구직자가 3배 가까이 더 존재한다.

20대 고학력 잠재구직자 중에서 노동시장적 사유⁵⁾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204 천 명)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고학력 잠재구직자 중 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은 하지 않았으나 지난 1년간 구직활동 경험이 있었던 자인 ‘구직단념자’는 84천 명

5) 비구직 사유 중 노동시장적 사유는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근처(주변)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를 의미한다. 2019년 5월 기준으로 노동시장적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는 대졸 이상 고학력 204천 명(20대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 중 58.1%), 전문대졸 117천 명(20대 전문대졸 비경제활동인구 중 51.6%), 고졸 이하는 142천 명(20대 고졸 이하 비경제활동인구 중 32.7%), 재학생 78천 명(20대 재학생 비경제활동인구 중 6.2%)이다.

〈표 8〉 청년층(20~29세) 고학력 잠재구직자

(단위: %, 천 명)

		2015	2016	2017	2018	2018			2019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20대 고학력 잠재구직자		191	203	216	235	238	227	218	264	236	234
성별	남성	84	95	105	107	117	106	99	119	115	109
	여성	107	109	111	128	121	122	120	145	121	126
연령	20~24세	51	44	47	51	58	55	55	72	61	61
	25~29세	141	160	170	184	180	173	164	191	175	174
취업경험 있음 (비중)		134 (69.9)	142 (69.9)	158 (72.9)	167 (71.3)	164 (68.8)	161 (70.9)	165 (75.5)	180 (68.2)	159 (67.4)	169 (72.0)
비구직 사유	노동시장 외적인 이유	33	22	25	29	25	24	29	20	21	31
	노동시장적 이유 ⁴⁾	158	181	191	206	213	204	190	243	215	204
	지난 1년간 구직활동 있었음 ⁵⁾	70	79	87	97	85	82	84	90	72	84
	지난 1년간 구직활동 없었음	89	103	104	109	128	122	106	154	143	120
비경제 활동상태	취업준비 ²⁾	(82.1)	(84.3)	(88.7)	(87.0)	(91.3)	(88.7)	(87.7)	(90.4)	(89.0)	(88.9)
	쉬었음 ³⁾	(12.6)	(12.4)	(8.1)	(10.7)	(5.2)	(9.3)	(10.1)	(7.6)	(9.1)	(10.1)

주: 1) () 안은 20대 고학력 잠재구직자 중 비중임.

2) 취업준비는 학교나 학원에 가지 않고 혼자 집이나 도서관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와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으로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 다녔음을 의미함.

3)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함.

4)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를 의미함.

5) 구직단념자(취업희망과 취업가능성이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에서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대 잠재구직자 중 13.3%)에 이른다.⁶⁾

고학력 잠재구직자의 증가 추세는 취업준비 상태로 비경제활동인구 내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비경제활동상태를 보면, 고학력 잠재구직자 중 ‘취업준비’ 상태의 비중이 2015년 → 2018년 82.1% → 87.0%까지 확대, 2019년 5월에는 88.9%에 이른다. 2019년 5월 기준으로 20대 전체 잠재구직자의 비경제활동상태 중 ‘취업준비’인 경우가 77.5%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20대 고학력 잠재구직자에서 ‘취업준비’ 상태의 비중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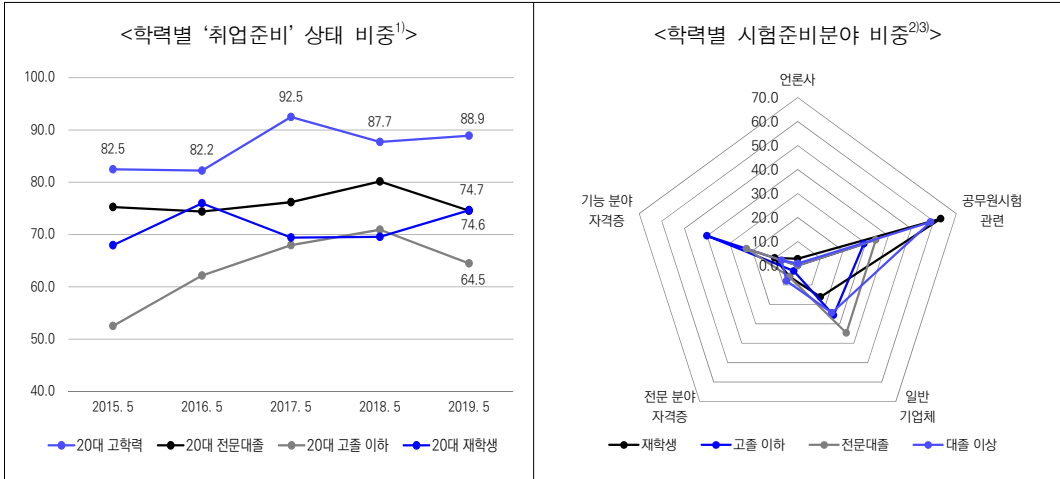
20대 고학력 잠재구직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이용해 조금 더 알아보았다(그림 2 참조). 20대 고학력 잠재구직자 중 ‘지난 1주간 취업을 위해

6) 학력별 구직단념자는 2019년 5월 기준으로 고졸 이하 55천 명, 전문대졸 39천 명, 대졸 이상 84천 명, 재학생 23천 명이다(20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42%, 1.69%, 3.69%, 1.00%).

7) 각 학력별로 잠재구직자의 비경제활동상태 중 ‘취업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5월 기준 대졸 이상(88.9%)>재학생(74.7%)>전문대졸(74.6%)>고졸 이하(64.5%)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림 2] 학력별 20대 잠재구직자 중 '취업준비'자 비중 및 시험준비분야 비중

(단위 : %)



- 주 : 1) 학력별 20대 잠재구직자의 비경제활동상태 중 '취업준비'의 비중, 각 연도 5월.
 - 2) 학력별 20대 잠재구직자에서 지난 1주간 취업관련 시험준비를 한 자 중 시험준비분야별 비중, 2018년 5월.
 - 3) 언론사 : 방송분야 및 중앙·지방 신문사,
공무원 관련 : 공사, 공단 등 국·공영기업체(중앙정부 산하 공사, 공단, 지방정부 산하 공사, 공단)와 교원임용 고시(유치원, 초등, 중등 공·사립 임용시험), 5급 공채(행정·기술·외무고시), 일반직 공무원(고등고시와 교사를 제외한 행정직, 경찰직, 소방직, 군무원, 법원직, 연구직, 특정직)을 포함.
일반기업체 : 대기업, 중소기업 등 일반기업체
전문분야자격증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분야 자격증
기능분야자격증 : 미용사, 조리사 등 기능분야 자격증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여러 학원 등에 다녔거나, 집 또는 독서실 등에서 취업을 위하여 특정한 시험을 준비'하였는지 파악하는 항목에 '시험준비를 하였다'라고 응답한 청년은 2015년 5월 → 2018년 5월에 175천 명(87.1%) → 195천 명(89.2%)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 5월 기준으로 시험준비분야는 '공무원 시험 관련'이 114천 명으로, 20대 시험준비중인 고학력 잠재구직자에서 58.6%를 차지했다.⁸⁾ 또한 대기업, 중소기업 등 일반기업체 취업을 위해 시험을 준비하는 자도 48천 명(24.4%) 수준으로 나타났다.

8) 이는 청년층 잠재구직자(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간 '시험준비'를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므로 공무원 관련 시험에 원서를 접수하여 응시한 인구는 제외된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업자의 주된 구직방법을 조사하는 문항에 '시험접수, 시험응시'라고 응답한 실업자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 5월 69천 명(20대 실업자 대비 18.3%) → 2018년 5월 142천 명(32.2%)로 증가하고 2019년 5월 115천 명(27.3%) 수준이다. 조사의 특성상 시험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20대 청년층 실업자 중에서 시험접수, 시험응시의 형태로 직업을 구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 발견된다. 또한 구직방법이 '시험접수, 시험응시'인 20대 실업자 수가 매해 공무원 시험접수 기간이 지난 후부터 갑자기 증가하는 현상(비경제활동 → 실업자로 집계됨)이 관찰되는데, 이를 고려해 볼 때 20대 실업자 중 '시험접수 및 응시자'에도 공무원 관련 시험준비생이 큰 규모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III. 맺음말

본고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20대 청년층 고용보조지표를 산출하고, 각 구성항목의 규모 및 변화를 통해 청년층 고용상황을 알아보았다. 2019년 5월 현재 20대 청년층 실업률은 10.1%로 높은 수치이나 고용보조지표는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실업률에 대한 고용보조지표 3(24.4%)의 배율은 2.42배에 이르고 격차(5월 기준 14.3%p)는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현재 청년층 실업자의 규모보다 잠재 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를 포함하는 잠재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더 크고, 이 잠재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은 잠재구직자가 차지한다. 청년층 잠재구직자 중에서도 대졸 이상 고학력 잠재구직자의 비중이 증가세에 있는데, 2019년 5월 기준으로 전체 20대 잠재구직자의 37.1%로 나타났다. 고학력 잠재구직자의 대부분은 '취업준비'를 위한 비경제활동인구 상태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의하면 20대 고학력 잠재구직자 중 취업관련 시험준비를 하는 청년의 비중은 점점 증가해 2018년 5월 89.2%에 이르렀다. 이 중 공무원 시험 관련 준비생이 58.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일반기업체 시험준비생도 24.4%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고학력 잠재구직자의 증가에는 공공부문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나 복지 등 근로조건 격차가 큰 상황에서 '더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라고 여겨지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입사시험 준비형태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규모가 커짐에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같이 좋은 인적자원을 가진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 같은 청년고용정책과 함께 우리 경제는 청년층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청년층 노동력이 한정된 일자리를 얻기 위해 과도하게 경쟁함으로써 야기되는 불필요한 자본 및 시간적 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KLI**